인도 쿠산시대의 스투파 형식

Stupa Form of India, The Kushan Era

천 득 염*

Cheon, Deuk-Youm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김 준 오

Kim, Juno

(전남대학교 문화재학 박사)

Abstract

The typical form of Indian Stupa, which is going to understood the gradual development and various forms at the Kushan-era Stupa. Buddhist art and architecture of the Kushan-era was influenced Gandharan Hellenistic culture of the foreign. And indigenous Indian cultures of mature was visually big change.

The Kushan-era Stupa has been ten feature.

First, a circular podium at typical form of the initial Stupa was constantly changed. Second, is the Stupa of the overlaps and increase podium. Third, the Stupa has been square podium. Forth, is down scale of Anda(Bokbal). Fifth, increases the Stupa and Railing smaller, and Change the position of the Torana(gateway). Sixth, changing the target of the faith, thereby a statue of Buddha has been added in the Stupa. Seventh, around the main Stupa and podium are made in a tabernacle. Eighth, the developed spokes structure was added to on the podium inside. Ninth, crosswise plan appears unlike general Stupa. This type has relevance with Tower Stupa. Tenth, the Votive Stupa was added to the temples and Apse type chaitya has been developed.

주제어 : 인도, 쿠산왕조, 간다라, 불교사원, 스투파, 부조스투파

Keywords: India, Kushan Dynasty, Gandhara, Buddhist Temple, Stupa, Relief Stupa

1. 서 론

쿠산왕조(기원 전후~5세기 중엽)¹⁾는 인도 불교미술의 번영기라 할 수 있는 시기이다. 흔히 이 시기에 이루어진 인도 불교미술은 서북인도(현 파키스탄)의 간다라미술과 북부 본토의 마투라미술로 나누어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쿠산의 두 가지 형식 이외에도 동인도나 남인도지방에서도 불교유적인 스투파와 사원지가 발

견되고 있어, 각 지역에서는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지닌 문화가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쿠산미술은 스키타이 민족인 쿠산의 지배 아래 서북인도, 편잡,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일대에서 발달했던 양식(Fig.1)을 지칭²⁾한다. 또한 쿠산미술 이해에 있어 중요지역이 되는 간다라는 일반적으로 인도 전통과 헬레니즘 문화가 혼재하면서 발전한 것으로 이해된다.

분석의 대상에서 쿠산 스투파로 한정함은 미술과 건축 분야에서 고전기, 즉 마우리아(B.C. 317년~B.C 180년), 숭가(B.C. 185년~B.C. 72년)와 함께 쿠산 불교미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특징을 정리하고자 했다. 그간의 쿠산미술 연구는 주로 간다라와 마투라 불상이 중심이었으며, 동시에 불교사원도 다각도에서

2) Benjamin Rowland, 이주형 역, 『인도 미술사』, 예경, 2004, p.114.

* Corresponding Author : dycheon@hanmail.net

1) Susan L. Huntington, 『The art of Ancient India, Buddhist, Hindu, Jain』, Weatherhill, New York, 1985, p.125. 쿠산왕조는 1~5C에 존재한 왕조이나,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시기는 1C 말에서 3C로 인식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쿠산왕조의 미술양식이 이후 인도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므로, 5C까지 그 연원을 한정한다.

Fig.2 Floor Plans of The Parthenon, Greece
(by Winand W. Klassen)

미술과 건축양식이 인도에 전달되어 표현되는데, 초기에 축조된 건축의 예는 드물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는 1세기경에 조성된 탁실라 잔디알(Jandial) 신전(Fig.2)을 들 수 있다. 이 신전은 평면이 그리스 신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주목된다. 신전의 평면형식은 이오니아식 기둥(Fig.3) 뒤로 신전이 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지성소가 나온다. 지성소와 연단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대형의 스투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신전에서는 기둥이 있던 자리에 커다란 창을 규칙적으로 낸 벽(석축)이 축조된다. 신전 내부의 구성은 전실, 내진, 후실로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그리스와 간다라지역이 서로 동일한

Fig.3 The Ionic Capital of Jandial temple, Taxila(blog, Sanctification love, 더욱이 입구에 Jesus love)

는 2개의 이오니아식 주두가 세워져 있어 그리스 형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양자 간의 차이점은 내진과 후실 사이에 견고한 돌더미가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자리에는 높이가 약 12m인 스투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⁹⁾ 이처럼 잔디알 신전은 어떤 종교에

9) J. Marshall은 이 스투파의 존재로 보아 이 건물을 조로아스터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건축 평면의 디테일에 나타난 모습으로 보아 헬레니즘의 전통을 계승한 건축임을 알 수 있다.¹⁰⁾

간다라지방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해진 것은 마우리아왕조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아소카왕은 탁실라의 달마라지카(Darmarajika)와 스와트의 붓카라(Butkara) 제1사원지 스투파 등을 건립¹¹⁾했다고 한다. 즉 스투파는 인도 중북부에서 처음으로 조성되어 서북부인 간다라로 전파된 것이지만, 이들 두 곳에서 유행한 시기는 대체로 비슷하다고 본다. 그러나 간다라에서 불교사원이 활발하게 조성된 것은 쿠산왕조 이후의 일로 간다라 탁실라를 중심으로 다수의 사원지가 발굴되었다. 이 사원지의 대다수는 심하게 붕괴되었지만 가람배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간다라에는 4,000내지 5,000곳에 불교사원이 있었다고 전해지나, 현재까지 페샤와르, 스와트, 탁실라에만 약 1,000여 곳이 확인되었다.¹²⁾ 이와 함께 남인도지방¹³⁾과 중북인도에서도 불교문화의 흔적은 이른 시기부터 나타났다.

3. 쿠산시대의 스투파 형식

3-1. 발전된 원형기단

쿠산시대 스투파의 최초 양식은 산치나 바르후트 스투파와 같이 시원형에서 점차 발전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형식은 간다라 스투파에서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기단과 드럼, 반구형 복발이 있고, 대부분 조각과 부조가 부가¹⁴⁾되어 있다. 그러나 이 형식에서 상부구조가 완전한 상태를 가진 대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

발달된 원형기단을 보이는 사례로는 대표적으로 간다라의 달마라지카(Dharmarajika, Fig.4), 마니키알라

신전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10) 미야지 아키라, 김향숙 역, 『인도미술사』, 다홍미디어, 2006, p.112.

11) 문명대 외, 『간다라에서 만난 부처』, 한언, 2009, p.458. 달마라지카와 붓카라 사원은 유구의 발굴을 통해 마우리아시대까지 그 연원을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심 스투파는 이후 개보수와 증축을 거쳤으므로 마우리아시대에 축조된 원형은 알 수 없다.

12) 손신영, 『간다라 방형기단의 일고찰』, 강좌미술사 25호, 2005, p.127. 각주 28 참조.

13) 미야지 아키라, 김향숙 역, 전제서, p.160. 불교의 남인도 진출은 이 또한 아소카왕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마이솔지방에서는 아소카 마애법칙(磨崖法勅)이 6곳 발견되었고, 또한 아마라바티에서도 소형의 석주법칙(石柱法勅)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1~4세기경 사타바하나왕조의 익슈바쿠왕대에 와서야 안드라지방에서는 불교미술이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간타살라, 바티프로루, 아마라바티, 자가야페타, 나가르주나콘다 등이 있다.

14) Benjamin Rowland, 이주형 역, 전제서, p.135.

(Manikiala), 붓카라(Butkara) 제1사원지, 알리 마스지드(Ali Masjid), 자말가리(Jamalgarhi) 스투파와 동북인도 사르나트의 달마라지카, 바이살리의 Ramabhar(다비탑), 원후봉밀터 스투파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간다라의 달마라지카나 붓카라 1사원지 스투파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산치나바르후트 스투파처럼 B.C. 3

Fig.4 The Tabernacle of Maha Stupa in
Dharmarajika Temple

것이라 전해지고 있다. 이 스투파들의 공통점은 원형기단에 복발을 얹은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스투파는 여러 시기에 걸쳐 증축하고 확장되었는데, 확장과정에서 그 모습이 조금씩 변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남아있는 유구와 각 사례들의 평면을 보았을 때 간다라 스투파는 비교적 복발의 원형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형기단은 간다라에 분포하는 수많은 스투파 유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편이다. 이는 이후 언급되는 방형기단이나 십자형 평면이 발전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즉 간다라의 원형기단 스투파는 그 개체가 적고, 조성연대가 비교적 기원전으로 추정되고 있어 초기 유형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한다.

반면 동북인도에서도 원형기단을 가지는 스투파의 개체수가 소수 나타나고 있는데, 대부분 쿠산 이전부터 조성되어 지속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 간다라 스투파는 기단에서 감실이나 불상과 같은 형식의 구조가

발전했고, 동북인도 사르나트의 달마라지카(Fig.5) 등의 스투파에서는 대부분 기단과 복발만이 남아 있다. 이 유형의 스투파에서

Fig.5 Dharmarajika stupa, Sarnath

는 복발이 기존의 크기와 유사하게 유지되는 특징을 보인다.

3-2. 중첩되고 높아진 기단형식

쿠산시대 스투파는 인도 서북의 간다라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특히 기단부에서 두 가지의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알리 마스지드(Ali Masjid)

Fig.6 Ali Masjid Stupa
(Photo by Beglar, Joseph David, 1878)

(Fig.6)나 자울리안(Jaulian, Fig.7) 스투파를 포함하는 다수의 유구와 로리안 탕가이(Loriyan Tangai)에서 출토된 소형 봉헌스투파(Fig.8)에서 볼 수 있듯이 종래 원

통형 드럼(Drum, 台基, 鼓胴部)¹⁵⁾에 원형과 사각평면의 받침대가 새롭게 부가된 것이다. 이 받침대는 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인도의 평지사원과 석굴사원 스투파에서는 원형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

Fig.7 Square podium with the
development of Jaulian Stupa

단을 갖춘 스투파에는 대부분 계단이 설치되나, 소형의 봉헌스투파에서는 보이지 않기도 한다.

또 하나의 변화는 기단의 사면에 전체적으로 장식을 가미한 것이다. 기단 하부에는 코린트식 기둥이나 드물게 이오니아식 기둥형식으로 몇 개의 구획을 나누어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 기둥 사이에는 아치형 감실을 두기 시작하고, 점차 불상과 같은 조상이 부가된다. 이 형식은 헬레니즘의 건축적 경향이 스투파 조형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간다라에서 발전된 특징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기단에서 보이는 이 두 경향은 서로 연관성을 보이는 데, 원형과 방형을 형성하면서 스투파에 장식적 경향이 강해지고, 신앙의 차원에서 대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15) 중국에서는 이를 台基라 하며 일본인들은 鼓胴部라고 한다. 복의 배 부분, 즉 복의 몸통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이희봉교수는 이를 영어권의 명칭으로 드럼을 채택하였다.

기단의 층수를 증가시키면서 고준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스투파는 신앙의 대상인 불타를 모신 사당이므로,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단부만을 여러 겹으로 높게 구성하는 스투파는 알리 마스지드와 모라모라두(Mohra Moradu) 스투파가 위치하는 아프가니스탄 남부와 스와트지역에서 보이는 주요 형식이다.

Fig.8 Votive Stupa of Lorian Tangai(Calcutta Museum)

한편 중인도의 석굴사원 스투파나 부조스투파들은 대부분 기단부가 원통형과 방형으로 차츰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모습이 가늘어지고 있다. 초기의 평지사원 스투파는 규모가 아주 크고, 기단부가 단층으로 낮은 반면, 석굴사원 스투파는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적어진다. 그리고 간다라지방에서는 봉헌용 소형 스투파처럼 기단부가 중첩되어 높아진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시기상으로 석굴사원 스투파가 평지사원 스투파에 비해 후대에 조성된 것이고, 또한 규모가 작은 까닭에 의장적으로 수직적인 조형성을 강조하여 장엄한 것이라 생각된다. 즉 다양한 왕조들이 교차하면서 인도 내적인 정세 변화와 함께 간다라에서의 외적인 요소들이 서로 습합되면서 스투파 본래의 의미보다는 장식적 의미가 더 강조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간다라 스투파의 영향으로 인도 중북부에 소재한 석굴사원의 스

이와 함께 사르나트의 다메크(Dhamekh, Fig.9) 스투파에서도 높아진 기단형식을 볼 수 있다. 현재 스투파는 원형을 잃어 그 형태가 명확하지 않다. 주변에는 유사한 형태의 봉헌스투파가 남아있어 이를 보았을 때, 다메크 스투파는 하부의 지대석 위로 장식된 기단이 높게 부가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⁷⁾ 또한 스투파는 높아진 원형기단과 함께 복발이 작아지는 경향이다. 그러나 이는 봉헌스투파에 한정된 것으로 완전한 형태의 유사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3-3. 방형기단의 스투파

쿠산시대 스투파는 이전의 일반적인 원형기단 스투파와 달리 페샤와르의 탁트이 바히(Takht i Bahi, Fig.10)를 비롯해, 탁실라의 자울리안(Jaulian), 모라 모라두, 스와트의 사이두 샤리프(Saidu Sharif), 싱게다르(Shingardar), 굼바투나(Gumbatuna), 굴다라(Guldara, Fig.11), 지난 왈리 데리(Jinnan Wali Dheri), 디르 찻파트(Dir Chatpat) 등의 간다라 스투파와 북인도 구자라트

Fig.10 The Restore of Takht i Bahi(P. Brown, p.33.)

의 테브니모리(4C)나 날란다사원 등에서 방형기단이 조성된 것이 특징적이다.¹⁸⁾ 또한 방형기단은 봉헌용 소형 스투파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표현되고 있다. 기단이 정사각형 혹은 직사각형인 이 스투파는 정면으로 계단이 있고, 기단 위로 복발이 올라가는데, 이는 시각적인 강조와 함께 높은 위계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간다라 스투파의 방형기단은 대체로 로마와 헬레니즘

Fig.9 Dhamekh stupa and Votive stupa, Sarnath

투파에서는 기단부가 발달하면서 고준한 모습으로 변모한 것¹⁶⁾이라 할 수 있다.

16) 간다라 방형기단은 대체로 쿠산왕조 들어서면서 발전한 양식적 경향으로 이해된다. 반면 중인도 석굴사원에서는 방형기단이 1~2C 이후 불교침체를 거친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석굴사원 스투파와 부조스투파는 대부분 4~5C 이후 원형과 방형기단이 다단을 형성하면서 높아지는 경향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희봉교수의 다수 논고와 김준오의 『인도 초기 Stupa 형식 연구』(2012)에서 언급하고 있다.

17) Christopher Tadgell, 『The History of Architecture in India』, Phaidon, 1994, p.33.

18) 손신영, 위의 논문, p.138.

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양식으로 보기도 하나,¹⁹⁾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치 않다. 그러므로 스투파의 원형기단이 방

Fig.11 Guldara Stupa(Rhi, Ju Hyung, Afghanistan, Lost Civilization, p.144)

형으로 변모된 것을 로마의 건축에서까지 찾으려 하는 논거²⁰⁾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도의 방형기단과 함께 바퀴살구조는 로마에서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단지 하나의 유사한 형식이었을 뿐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독자적인 발전양식으로 보고 있다.²¹⁾ 따라서 간다라 방형기단의 유래는 로마와 교역의 산물이라 단정 짓기는 어렵다.

방형기단 스투파는 1~2세기경 탁실라에 등장하여 간다라 전역으로 확대되었는데, 3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4~5세기에는 인도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서쪽의 아프가니스탄이나 동북의 중앙아시아 불교사원에 이르기까지 간다라 스투파 형식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일반 스투파, 그리고 석굴사원의 봉헌스투파나 부조에서도 방형기단이 나타나고 있다. 간다라에서 출토되는 부조에서도 방형기단이 다수의 개체에 보이고 있다. 이는 이후 5세기에 세워진 날란다대학의 방형기단 스투파(Fig.12)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Fig.12 Votive Stupa of Square Podium, Nālanda Temple

간다라에서 방형기단을 갖춘 스투파는 탁실라의 도시 유적 시르캅(Sirkap)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이 도시

유적은 B.C. 2세기 박트리아를 세웠던 그리스인에 의해 건설되었고, 전면으로 스투파 기단으로 추정되는 것이 총 8기 남아있다.²²⁾ 이곳은 B.C. 3세기경 본격적으로 불교사원과 스투파가 건설되었으므로, 발굴된 유구를 통해 스투파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유적은 불교의 스투파인지, 자이나교 스투파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이나교로 보고 있다. 즉 불교 스투파는 자이나교 스투파와 외관상 차이가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²³⁾

그리고 시르캅 F지역의 쌍두독수리 스투파(Fig.13)는 방형기단을 보이는 다른 예로 주목된다. 스투파는 약 6m

Fig.13 Two-Headed eagle Stupa
(Photo by Shon, Shin young)

폭의 방형기단인데, 상부의 복발은 파손됐다. 기단의 중앙에는 사리를 수장하기 위한 작은 실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리용기는 도둑을 맞았는지 보이지 않는다. 이 스투파는 기단의 측면에 있는 장식이 특징적으로, 그리스 계통의 코린트식 기둥을 세우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패널에 신전풍의 박공을 정면으로 향하게 한 감실을 조성했다. 감실의 정상에는 머리가 둘 달린 독수리 부조와 인도풍의 토라나가 남아있다. 여기서 코린트식 기둥과 박공은 그리스계 건축의 영향이고, 머리 둘 달린 독수리 도안은 서방으로부터 전해진 스키타이계라 말해진다.²⁴⁾ 또한 이는 바빌로니아나 히타이트, 그리스의 기하학 양식에 쓰이던 도안으로 보기도 한다.²⁵⁾ 즉 사카파르티아 양식과 함께 인도계 모티브인 곡선적인 박공과 토라나 형태가 동시에 공존하는 걸로 보아 이 쌍두독수리 스투파는 탁실라지역에서 동서양의 문화가 동시에 혼재하면서 발전했음을 보여준다.²⁶⁾

19) 桑山正進, 『Stupa 方形基壇의 由來』, 足利惲氏博士喜壽記念 Orient學, Indo 學論集, 國書刊行會, 1978; 미야지 아키라, 김향숙 역, 전게서, p.126에서 재인용. 이러한 기단부의 형태는 로마의 석관형식에서 유래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20) 이 의문은 간다라양식이 표현되는 미술과 건축 등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나, 당대의 사상적, 양식적 변화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변모된 양상으로 본다.

21) 손신영, 위의 논문, p.141.

22) 고쉬(A. Ghosh)와 마샬(J. Marshall)은 각기 다른 근거로 전체 유적을 편년하였고, 방형기단도 조성연대가 조금씩 다르게 추정하는데, 고쉬는 2세기 전반으로, 반면 마샬은 1세기 전반으로 보고 있다.

23) 村田治郎, 『東洋建築史』, p.61~62; 손신영, 위의 논문, p.139. 자이나교에서도 스투파를 예배했는데, 이는 마투라에서 출토된 봉헌용 스투파 석판부조에 의해서 알 수 있다.

24) 宮治昭, 『印度美術史』, 吉川弘文館, 1997, p.66.

25) 이주형, 『간다라 미술』, p.60.

탁트이 바히 (Fig.14)는 발굴조사를 통해 스투파와 다수의 승방, 그리고 수도원으로 구성됐음을 알 수 있다²⁷⁾. 이곳은 세 구역으로 나뉘지는데, 스투파는 주탑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Fig.14 Rayout of Takht i Bahi (Christopher Taddell, Fig.41)

방형기단만 남아 있다. 스투파는 정면으로 4층의 계단이 있어 이를 통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스투파를 중심으로 동남서 3면으로 15실의 작은 감실형 불전이 둘러싼 형식이다.²⁸⁾

간다라에는 비록 일반 스투파는 아니지만 로리안 탕가이와 같은 봉헌스투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형태적 특징을 추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스투파는 완형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봉헌스투파는 방형기단의 스투파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P. Brown이 추정 복원한 탁트이 바히 사원(Fig.10)의 주 스투파를 보았을 때, 방형기단 스투파는 로리안 탕가이 봉헌스투파와 아주 유사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방형기단에서 주목되는 것으로는 기단 정면으로 계단이 설치된다는 것이다. 계단은 짧거나 길어진 형태를 보이는데, 대부분 정면의 한 방향으로 설치되고 있다. 탁실라 달마라지카에서는 계단 정면으로 돌출되는 매우 독특한 테라스 형식을 보이는데, 이는 간다라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형태이다. 이 형식은 남인도 안드라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보통 플랫폼(Platform)²⁹⁾이라 한다. 방형기단을 높게 해서 앞에 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탁실라를 포함하여 모라모라두 등 다수의 서북인도 스투파와 봉헌스투파에서도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서북인도에서 늦어도 A.D. 1세기경부터 발생해 인도 전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북인도에서는 방형기단의 사례가 소수 확인되었는데,

26) 미야지 아키라, 김향숙 역, 전게서, p.114. 특히 이 모티프는 서양으로 전파되어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프리메이슨(Freemason)이나 미국 사법부의 상징 등에도 쌍두 독수리의 모티프가 사용되고 있다.

27) Susan L. Huntington, 전게서, p.130.

28) 문명대 외, 『간다라에서 만난 부처』, 한연, 2009, p.422~423.

29) 손신영, 위의 논문, p.120. 손신영은 이 계단 형식을 아야카(Ayaka)라 했으나, 아야카는 계단(Platform) 위에 세워지는 다섯 개의 기둥을 말한다.

이는 고탑형 스투파와 어느 정도 연계되기도 한다. 사례로는 구자라트의 데브니모리(4C)와 신드의 미르푸르 하스(5~6C), 날란다를 들 수 있으나, 미르푸르 하스는 쿠산왕조 이후에 조성된 것이다. 데브니모리 스투파는 방형기단이 남아있고, 그 위로 드럼과 복발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날란다사원에서는 중심스투파가 대부분 파괴되어 그 원형을 알 수 없으나 방형의 기단과 상부의 괴체가 남아있다. 이를 보았을 때 북인도의 방형기단 스투파는 큰 기단과 높은 드럼부가 발전했는데, 이는 이 시기에 조성된 스투파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³⁰⁾

이상의 내용을 보았을 때 쿠산시대에 발전한 스투파의 가장 큰 특징은 방형기단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방형기단의 구조는 측면에 부가되는 기둥과 박공, 감실, 그리고 각종 장식의 부가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이는 로마·헬레니즘의 직접적인 영향과 발전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방형기단의 예는 석굴사원에서도 다수 보이는데, Fig.15 Stupa in front of a statue of Buddha, Dhamnar Caves No.3

Fig.15 Stupa in front of a statue of Buddha, Dhamnar Caves No.3

부에 부가된 소형 스투파와 중형 규모의 차이티아 스투파, 그리고 부조스투파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바그 석굴에서는 6각형의 기단도 나타나고 있어 점차 원형이나 방형의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상대적으로 축소된 복발

초기 스투파와 달리 쿠산시대에 변화되는 형식 중 하나는 복발이 축소(Fig.16)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서북부 간다라 지방의 방형기단 스투파와 소형 봉헌스투파, 그리고 중인도 석굴사원의 차이티아 스투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특징적으로는 기단이 2층 이상으로 분화되고, 몸통부에 해당하는 드럼이 다층으로 발달하였으며, 복발이 점차 퇴화되는 현상이다. 즉 스투파는 초기의 거대한 반구형 복발에서 점차 작아지고, 복발 하부인 드럼이 원통과 방형기단으로 변모되면서 다수의 단으로 구축된다. 이와 함께 역사다리꼴의 하미카는 점차 작아지고, 산개는 여러 단으로 겹쳐지면서 수직적

30) 미야지 아키라, 전게서, p.190~191.

인 상승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처럼 복발이 작아지는 것은 스투파 자체가 작아지거나 다단을 형성하면서 수직성이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복발이 축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축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단과 상륜부가 커진 것이다. 특히 방형기단을 보이는 스투파는 주변으로 다수의 봉헌스투파가 가미되고, 부속체가 부가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언급한 P. Brown의 탁트이 바히의 추

Fig.16 Podium nested Votive Stupa of Mohra Moradu(Taxila Museum)

정 복원도(Fig.10, 11)나 로리안 탕가이 봉헌스투파(Fig.8)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례이다. 그러나 복발이 작아지는 경향은 중심 스투파를 제외한 봉헌스투파에만 한정하여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초기 스투파 형식을 계승한 원형기단에서의 한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즉 쿠산시대의 발전된 방형기단과 다층형, 십자형 평면을 보이는 스투파에서는 대체로 전체 크기에 비해 복발이 작아지고 있다.

이 형식은 대부분 다수의 유구가 남아있는 간다라 스투파에서 주

로 보이고 있으나, 중북인도에서도 다 메크(Fig.9)나 케사리아(Kesaria, Fig.17) 스투

Fig.17 Patra(鉢盂) stupa of Kesaria

작어진 복발 유형을 일부 볼 수 있다. 그러나 발전과 변화를 보이는 다수의 북인도 스투파에서 완전한 형식을 갖춘 상부구조는 흔치 않다.

3-5 난간과 탑문의 변화

쿠산시대 이전의 중인도에서는 산치스투파(Fig.18)처럼 스투파를 둘러싼 난간이나 탑문이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난간과 탑문은 간다라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인도에서 어떠한 사례도 보이지 않고 있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중인도 평지사원의 스투파

탑문이나 난간에서 보이는 장엄조식은 간다라지방에서 주로 스투파 기단이나 드럼부에 장식화되어 차이를

Fig.18 Sanchi Stupa Torana and Vedika

보인다. 즉 간다라 스투파에서는 탑문과 난간이 없어지고, 스투파 자체에 각종 조각으로 장엄된다는 점이 특징³¹⁾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알리 마스지드 스투파에서는 방형기단에서 층단을 형성하면서 드럼 하부구조가 세분화되고 고준해진다. 다시 말해 간다라 스투파는 기존에 난간으로 둘러싸인 원형 스투파에서 벗어나 작은 원형 돔이 올려진 높은 방형기단으로 구성된다. 난간이 없어지면서 스투파는 불상이 안치된 사당으로 둘러싸인 장방형 뜰 안에 세워지게 된다.³²⁾

중인도에서는 초기에 이어 후기 석굴사원인 칸헤리, 엘로라, 아잔타(Fig.19) 등의 차이티아 스투파 기단부에서 일부 난간이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석굴처럼 좁은 공간에 조성되는 스투파는 주변으로 난간을 둘러거나 탑문을 설치하지 못한 대신, 스투파 자체에 돌출된 부조로 표현되었다. 이 형식은 점차 감실이나 건축적인 구조로

Fig.19 Dual podium of Ajanta No. 26 Caves

로 난간을 표현한 것으로 본다.

이를 보았을 때 쿠산시대 스투파의 난간 표현은 중인도의 석굴사원에서처럼 스투파 표면에 상징적인 의미로 지속된다. 간다라 스투파는 시기적으로 서인도 석굴사원 조영과 유사한 시기에 발전된 것으로, 이는 양자 문화간의 문화적 동질성에 의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즉 간다라 스투파에서는 독립된 난간이 조성된 사례가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단지 스투파 자체에 장식용 난간이 부가되고 있다. 특히 방형기단의 상부에 작게 묘사되고 있거나 봉헌스투파의 기단과 상부 장식으로 난간이 부가되

31) Benjamin Rowland, 이주형 역, 전게서, p.137.

32) Vidya Dehejia, 이숙희 역, 전게서, p.86.

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중인도에서 스투파 근처에 조성되던 탑문은 간다라 지역에서 사원의 외곽으로 위치하면서 스투파가 전체 사원영역의 일부로 변화된다. 이는 승가와 신도가 증가하고, 각종 의례를 위한 부속건물이 추가되면서 상가의 영역이 점차 커지는 현상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치나 본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보드가야의 마하보디처럼 기존에 부설된 난간과 탑문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변으로 상가의 영역을 넓히는 경우도 보인다.

3-6. 불상이 표현된 스투파

서북인도와 중북인도 스투파에서 보이는 또 다른 변화 양상으로는 불상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이는 스투파를 포함하는 불교 조형행위에 있어 일대 혁신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불상의 출현은 대체로 쿠산왕조의 1세기 말로 보는데, 불상은 점차 스투파 탑신이나 벽감의 부조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는 이후 굽타왕조에 이르러 그 의미가 스투파를 대신하거나 능가하게 된다.

이러한 양식적 변화는 간다라에서 불상이 발전하면서 스투파와 불상이 결합된 것으로 인식되는데, 로리안탕가 이 봉헌스투파를 비롯해 다수의 스투파 유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보았을 때 간다라 스투파에 부가된 불상은 기단이나 드럼 면에 작은 감실을 만들고, 그 안으로 부가되는데 그 크기가 작은 편이다. 이는 불상이 발전하면서 주 신앙대상이 스투파에서 불상으로 점차 변모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즉 불상이 스투파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스투파의 일부로 장엄되고 있고, 신앙의 중심은 여전히 스투파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간다라 스투파에 표현되는 불상은 전반적으로 그 크기가 작은 편이다. 이는 간다라 지역이 초기 쿠산양식의 스투파가 발전된 곳이라는 의미가 크다. 즉 봉헌스투파를 비롯한 일반사원 기단에 부가된 벽감의 불상, 그리고 복발에 조각된 불상은 전반적으로 그 크기가 작아 주로 전생담이나 붓다 생애, 과거불 등을 담은 불전도나 장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불상의 도상학적인 발전과 함께, 스투파에서도 건축적 발전이 동시에 이뤄진 것이다.

불상의 표현은 이후 인도 전역으로 전파되는데, 중인도와 남인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인도의 초기 석굴에서도 유사한 형식이 점차 발전한다. 스투파에 불상이 결합된 사례의 예로는 후기 칸헤리 비하라와 담나르 비하라, 아잔타 차이티아, 그리고 피탈코라 불전벽화와 아잔타의 벽화 등을 들 수 있다. 석굴사원 차이티

아³³⁾는 중심이 되는 장소에 스투파가 자리하지만, 기단과 복발의 일부에 당당한 모습으로 불상이 위치하면서 스투파라기보다는 오히려 불상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는 스투파와 불상, 혹은 스투파와 불전이 하나로 결합된 형식이라 할 수 있다.³⁴⁾

여기서 주목되는 사례로는 칸헤리와 담나르 비하라를 들 수 있다. 칸헤리 석굴은 초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조영된 석굴사원이다. 비하라 3굴(Fig.20)은 비교적 후대의 것으로 판단되는데, 불상이 스투파와 부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이 시원적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비하라에 건립된 스투파 형식에서 어느 정도 고식의 형태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담나르의 비하라

Fig.20 Buddha statues and Stupa railing in Kanheri Caves

스투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식의 스투파를 보이고 있다. 담나르석굴의 조성연대는 4세기 이후이므로, 고전기 이후 간다라양식이 전파하는 과도기적 형태의 스투파를 보이고 있다. 즉 담나르는 당대 쿠산의 중심지인 간다라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마투라와 근접한 곳이자, 샤카왕국이 연해 있는 국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산치와 아잔타, 엘로라 등과 근접해 있는데, 바자석굴과 함께 스투파의 과도기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담나르 석굴은 발전된 쿠산양식의 스투파가 점차 중인도와 남인도로 이동했던 경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비록 남인도의 아마라바티와 나가르주나콘다 스투파에 불상이 혼합되어 나타난 부조보다 후대의 것이나, 스투파와 불상이 결합된 양식의 계통성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아잔타 19굴은 차이티아 중심 굴로, 후기에 해당하는 5세기경 조영되었다. 후기에 해당하는 비하라에서는 불상 위주의 불전도가 중점적으로 표현되었으나, 19굴과 26굴에서는 여전히 스투파가 중심(Fig.19)이 되고 있다. 이 차이티아에서의 스투파+불상 표현은 화려하

33) 중인도의 석굴사원은 대부분 쿠산시대 영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이 정확하게 쿠산영역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므로 스투파 발전의 계통성을 가진다.

34) 규모가 큰 비하라(vihara), 즉 승원의 중심에서는 불상이 안치된 불전과 같은 사당이 자리하게 되면서 가람의 중심이 스투파에서 점차 불상으로 옮겨가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게 장식되고, 고준해진 스투파와 함께 정교하게 묘사된 불상이 전면에 표현되고 있다. 물론 스투파는 여전히 차이티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나, 석굴에 진입했을 때 관람자는 눈높이에 조성된 불상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즉 차이티아 스투파는 자체적으로 부가된 불전이나 감실이 커지고 화려해지면서 스투파와 불상의 중요도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상이 발전(Fig.21)한다. 이를 보았

Fig.21 Relief Stupa of front Facade, Ajanta No. 19 Caves

Fig.22 Mural Paintings in a Buddhist sanctum of Pitalkhora Chaitya

을 때 스투파는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점차 불상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아잔타 차이티아 정면의 부조스투파나 피탈코라 차이티아 내부에 표현된 불전벽화(Fig.22) 등을 들 수 있다.

3-7. 봉헌용 소형스투파와 감실의 등장

불교사원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경배의 대상인 스투파와 승려들이 머무는 비하라로 이루어진다. 이중 비하라가 우선하여 나타나며, 붓다 사후에 스투파가 조성되면서 하나의 사원을 구성하게 된다.³⁵⁾ 이러한 불교사원의 발전은 경내에 다수의 스투파와 건물, 그리고 이들에 부가된 감실의 등장으로 이어진다.

쿠산시대 스투파에 있어 또 다른 변화로는 스투파 승배열이 고조됨에 따라 봉헌되는 스투파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즉 불교사원의 중심에는 대형 스투파가 자리하고, 주변으로 봉헌을 위한 다수의 소형 스투파나 감실형 불전³⁶⁾들이 에워싸는 모습으로 변모된다. 물론 초기 사원

에서도 봉헌스투파는 지속적으로 조영됐을 것으로 이해되나, 점차 다수의 봉헌스투파가 집중적으로 부가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 형식은 스투파와 승원이 건립되면서 초기 불교사원의 정형에서 발전된 형식으로 발전된 것인데, 대표적인 사례로 간다라의 달마라지카 스투파나 붓카라 1사원지 스투파, 마니키알라 스투파, 날란다사원 등에서 볼 수 있다.

본래 중인도와 간다라의 초기 가람에서는 선후를 달리 하여 승원과 탑원이 발생하였으나, 쿠산시대에 조성된 간다라 사원에서는 다발적으로 승원과 스투파가 결합된 대형 가람이 형성되고 있다.³⁷⁾ 일례로는 탁실라의 달마라지카 스투파(Fig.23)를 들 수 있다. 대형스투파를 둘러싼 소형의 봉헌스투파군은 B.C. 1세기

Fig.23 Rayout of Dharmarajika (Christopher Taddell, Fig.41)

후반부터 A.D. 1세기 에 조성되었는데, 이를 통해 봉헌을 위한 다수의 소형 스투파 출현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스투파 자체의 변화 이외, 주변의 시설물들이 부가된 변화양상도 나타나고 있어 중요하다. 즉 탁실라의 달마라지카 스투파와 같이 쿠산시대 스투파에서는 승경을 위해 봉헌된 작은 스투파와 사당(감실)들이 대 스투파 주위를 둘러싸는 경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비하라가 넓은 중정을 두고, 그 주위를 둘러싼 소형의 실들이 배치된 점과 어느 정도 유사한 모습이다.

이와 같이 대형 상가로 발전된 유적으로는 탁실라 남부 라왈핀디 지역의 마니키알라 스투파(Fig.24)를 들 수 있다. 이 스투파는 일부 파손된 상륜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적인 반구형 복발스투파에 가깝고, 기단도 낮은 모습이며, 원형기단의 동서남북 4면에 계단이 있다. 그리고 스투파 둘레에는 14기의 소형스투파와 15개소의 소형 승방인 감실이 있어

35) 초기사원에서는 붓다를 따르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후에는 스투파를 중심으로 다수의 신자들이 모였다. 더불어 승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대형의 비하라와 수행에 필요한 여러 부속 건물들이 가미되면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형식이 바로 승가(僧伽藍摩, Sangharamma), 즉 초기 가람의 출발인 셈이다.

36) 이 소형불전의 경우 불상이 봉안되었는지, 아니면 스투파를 예배한 곳이었던지는 분명하지 않다.

37) 손신영, 위의 논문, p.119. 물론 이들 이외에도 스투파는 승원의 마당이나 실내에 조성되기도 하며, 탑원 안에 건립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정적이다. 대스투파의 벽기둥으로 장식된 기단은 내부를 거친 돌로 쌓고, 편암으로 쌓았는데 그 안에 감실이 표현되어 있다.³⁸⁾

이렇듯 간다라 스투파에서는 다수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스투파에 감실이 조영되는 것이 하나의 경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Fig.24 Circular Podium and Tabernacle in Manikyala temple Stupa(Photo by Shon, Shin young)

감실의 조영은 북인도의 다메크, 케사리아 스투파에서도 작으나마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이후 마하보디와 같이 내부불전이 동시에 조영되는 형식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후기 석굴사원의 차이티아와 비하라에 부가된 스투파에서도 불상이 표현되고 있다.

3-8. 기단내부의 바퀴살구조 형식

쿠산시대 스투파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기단 내부에서 바퀴살구조 형식이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투파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복발의 밑, 즉 기단 내부에는 잡석과 흙으로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바퀴살구조의 기단에서는 대체로 그 중심으로부터 사방으로 두께가 0.9~1.5m인 석조 지지벽이 방사선 모양으로 뻗어 축조된다. 이러한 기단의 내부구조는 간다라와 남인도 스투파 기단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다.

바퀴살 모양의 기단 내부구조는 남인도의 나가르주나콘다 대스투파(Fig. 25)를 대표할 수 있다.

비록 나가르주나콘다는 남인도 스투파를 대표하고, 쿠산지

Fig.25 Stupa Podium of Nagarjunakonda Temples No. 9

역에 속하지 않지만 유사한 시기에 조영된 간다라 지역에서도 동시에 발전했다. 남인도에서는 22기의 스투파에서, 간다라 지역에서는 7기에

서만 바퀴살을 보이고 있어 남인도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간다라에서 바퀴살을 보이는 대상으로는 달마라지카와 샤지키 델리(Shahjiki-Delhi), 스와트계곡 붓카라 제1사원지, 마왈펀디의 마니키알라(Manikiala), 페샤와르의 자말가리(Jamalgarhi), 타칼 발라(Tahkal Bala), 필 카나(Fil Khana) 스투파를 들 수 있다.³⁹⁾

특히 이 구조는 제정로마시대의 황제묘 구조에서 나타나고 있어 서로 연계가 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로마 건축의 영향과 선후관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나, 이는 단지 추측일 뿐이고, 인도 재래의 전통건축이 반영되면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바퀴살구조는 대규모의 지진이나 하중을 고려해 구조 보강 차원에서 견고한 돌쌓기 방법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바퀴살구조의 기단을 갖는 스투파들은 모두 원형에서 출발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바퀴살구조를 보이는 스투파는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口’자형 실을 형성하면서 기단을 조성하고, 그 바깥쪽에 원형의 벽체를 하나 첨가한다. 이러한 벽돌벽은 골조를 쌓은 다음 중간에 흙을 채워 기초를 완성하게 된다. 이 방식은 인도 각지 스투파에서 이용된 일반적인 구축방법이다. Rolland는 이러한 바퀴살구조를 동심원적 만다라 도상으로 해석했다.

일례로 스와트의 붓카라 제1사원지에서는 바퀴살구조를 연상하는 원형기단의 대형 스투파가 남아있고, 탁실라의 달마라지카 스투파에서도 복발의 내부를 바퀴모양으로 구축했다. 이 스투파는 달마라지카 스투파와 유사한 시기인 아소카왕대에 축조된 것으로 4차례에 걸쳐 축조됐다.⁴⁰⁾ 그러나 붓카라 스투파 바퀴살구조가 4번의 축조과정 중 언제 조영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3-9. 십자형(十字形) 평면의 스투파

쿠산시대에 이르러 나타나는 스투파의 또 다른 양상은 평면형식의 변화이다. 일반적인 스투파 형식은 아소카시대에 조성된 것처럼 반구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기단평면에서는 원형과 함께 변모된 4각형(방형)이나 8각형, 십자형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된다. 이중 십자형 평면은 이전과 달리 더욱 발전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간다라에는 수많은 불교사원이 있지만 이중 카니슈카 스투파지로 추정되는 샤지키 델리가 가장 유명하다. 샤지키 델리는 1908~09년 인도고고국에서 페샤와르 동남 교외의 언덕을 발굴하면서 소위 카니슈카 스투파 유

38) Francine Tissot, 前田龍彦 佐野満里子 翻譯, 『Gandhara-圖說, 간다라 異文化地域의 生活과 文化』, 東京美術, 1998, p.54. 손신영의 위 논문에서 재인용.

39) 桑山正進(1998), 손신영 위 논문에서 재인용, p.121.

40) 손신영, 위의 논문, p.123.

적⁴¹⁾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유구를 발견했다. 이 스투파는 푸체가 카니슈카 대스투파라 추정한 이래 1908~1909년에 스푸너가 발굴한 결과, 방형기단 각 면으로 돌출부가 있는

평면이 알려졌다. Fig.26 Four sides Vihara of Shahjiki 다.⁴²⁾ 발굴된 스투 Delhi floor plans(Miyaji Akira, p.123)와 기단은 한 변이 약 55m의 방형이고, 사방으로 각각 15m가량 돌출된 계단이 나 있는 십자형 평면(Fig.26)이다.⁴³⁾ 이는 탁실라 제3기에서 보이는 사면승방식과 유사하다.⁴⁴⁾ 이 스투파는 현재까지 알려진 간다라지역 스투파 중 가장 크고, 바말라(Bhamala)스투파와 더불어 간다라에서 보기 드문 십자형 평면임을 알 수 있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십자형 평면의 스투파는 이전 양식과 달리 전혀 다른 형식으로 발전된 것이다. 즉 이는 기본적인 방형 평면에서 점차 사방위에 대한 수호 개념이 적용되고, 만다라 개념이 반영되면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형식은 인도에서 그 사례가 많지 않다.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십자형 평면이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주로 보이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그 연대가 한참 뒤의 것들이다. 이 유형 중 가장 유명한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Borobudur)는 만다라가 적용된 평면에 기단과 테라스를 계획하고, 그 위로 복발이 올려진 형태로 발전했다.

샤지키 델리와 같은 십자형 평면은 소수 사례를 제외하고 인도에서 보기 힘든 평면이다. 십자형 평면은 간다

라의 바말라 스투파와 중북인도 비하르 주의 케사리아(Kesaria, Fig.17) 스투파에서도 발전된 형식의 유사한 사례를 보이고 있다. 이중 케사리아 스투파는 기단 하부가 명확하지 않지만 중간에 다층의 테라스 있고, 상부 복발은 반 이상 무너진 상태로 남아있다.⁴⁵⁾ 이 스투파는 위에서 보았을 때 만다라 형태를 하고 있어 십자형 평면의 발전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3-10. 승원 내부의 스투파와 Apse형 차이티아

스투파는 불교가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초기 승단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특히 초기의 사원에서는 중심이 되는 스투파를 중심으로 점차 승원과 강당 등의 부속건물이 추가되면서 승단을 이루게 된다. 이는 초기 석굴사원에서도 유사한 형식을 띤다. 초기 석굴사원의 차이티아는 비록 사리가 봉안되지 않았지만 평지사원의 유형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고, 차이티아 스투파를 중심으로 승원이 부가된다.

이러한 승원(비하라)은 간다라에서 대승불교가 발전하면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는 봉헌스투파가 부가⁴⁶⁾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발전 형태는 승원 내부 마당에 부가되거나, 승원 내부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탁실라의 달마라지카에는 북쪽 승원구역 중심부에 4기의 스투파가 있고, 서쪽에서도 스투파 기단이 남아있다. 이러한 변모된 스투파 조형의 배경은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자, 개인적인 봉헌의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승원에 스투파가 부가되는 형식은 석굴사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바그, 담나르, 산치, 준나르, 칸헤리 등 다수의 석굴사원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간다라와 석굴사원 승원에 조영된 스투파 중 어느 곳에서 먼저 조영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선후문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본격적인 불상의 발전과 함께 스투파 양식이 변모하는 간다라에서 먼저 조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간다라 불교사원과 스투파 연대는 대체

41) 玄奘의『大唐西域記』第2卷『健駄邏國』기록에서는“...周小窣堵波處建石窣堵波欲以功力彌覆其上。隨其數量恆出三尺。若是增高踰四百尺。其趾所峙周一里半。層基五級。高一百五十尺方乃得覆小窣堵波。王因喜慶復於其上更起二十五層金銅相輪。即以如來舍利一斛而置其中。修供養。營建總傑見。小窣堵波在大其東南隅下傍出其半。王心不平。便即擲棄逐住窣堵波第二級下石基中半現...”라 기록하고 있다.

42) 桑山正進,『Shahjiki-dheri의 主塔의 變遷』,東方學報,第67冊(東京大學人文學研究所,1995. 손신영의 위 논문에서 재인용, p.122.

43) 방형기단의 크기는 여러 글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44) 미야지 아키라, 김향숙 역, 전게서, p.123. 그러나 이러한 평면은 일반적으로 쿠산왕조 이후부터 보이고 있으며, 기단의 크기가 현장의 기록과 맞지 않고, 사리가 또한 정교한 작품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과연 샤지키 델리 스투파가 카니슈카 스투파인지, 그리고 후대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45) 대연,『불교성지순례』, EASTWARD, 2000, p.150~152. 케사리아 스투파는 역사적 사료를 근거했을 때, 그 연대가 마우리아 아소카왕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스투파는 승가왕조, 쿠산왕조 때 보수와 증축을 거치면서 거대한 스투파로 변모하였다. 발굴의 결과, 둘레가 427m이고, 높이가 15.5m인 이 스투파는 표층 일부만 발굴되었으며, 하부의 구조는 아직까지 조사가 되지 않아 그 규모가 보로부두르보다 클 수 있다고도 한다.

46) 손신영, 위의 논문, p.134. 이 유형의 스투파는 일반적으로 Griha-stupa라 한다. 실내에 스투파가 조성된 사례로는 모라모라두나 붓카라 3사원지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구름 아래에 자리하는 독특한 입지조건과 주 스투파가 없는 배치, 각각의 방이 연결되어 실내에 조성된 원형기단의 스투파, 실내의 궁륭형 천정에 돌을 쌓은 것 등 다양한 형식으로 조성된다.

로 1~3C를 전후하고 있고, 석굴사원 승원에 부가된 스투파가 5세기 이후 것이므로 쿠산의 중심지에서 점차 전파된 것으로 본다. 또한 간다라와 테칸고원 중간지점에 위치하는 담나르와 바그 석굴사원은 비하라에 부가된 스투파의 연대가 3~4C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어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시르캅에는 중서인도 테칸고원 석굴사원에서 주로 보이는 차이티아와 유사한 형식의 불전형 봉헌스투파가 조성된다.⁴⁷⁾ 이 유형은 Apse(후진)형 차이티아로, 방형 전실과 궁륭형 천장의 후진에 스투파가 축조된다. 이 유형은 간다라 지역의 사원에서 다소 조성되고 있어 주목되는데, 건물은 방형이나 원형의 실과 전실 공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실과 후실이 결합된 차이티아 형식을 보이기도 한다. 이 형식의 스투파는 차이티아 스투파와 어느 정도 유사한 전개를 보이는데, 발굴 유구의 형식과 시기별 구분으로 보았을 때 승원의 구성 중 늦은 시기에 부가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시르캅이 도시유적이라는 것이다. 이 도시유적은 중심 가로의 동측 대지에 전방후원 평면을 보이는 불당과 전면으로 스투파와 유사한 기단 유구가 남아있다. 이를 보았을 때 차이티아 석굴과 유사한 평면 형태의 건축물이 산치와 같은 불교사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시가지에도 건설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⁴⁸⁾

이러한 Apse형 스투파 유형은 붓카라 3사원과 같이 석굴사원 차이티아를 연상하게 한다. 사례로는 붓카라와 함께 달마라지카, 니모그램(Nimogram), 타렐리(Thareli), 칼라완(Karawan, Fig.27) 등의 사원⁴⁹⁾에서도 주 스투파 주변으로 봉헌스투파가 부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의 평면은 석굴사원 차이티아 스투파가

Fig.27 Karawan Temple's Rayout with Apsidal Chitya-griha(Christopher Taddell, Fig.41)

47) Christopher Taddell, 전제서, p.30.

48) 윤장섭, 전제서, p.66~67.

전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점차 간다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초기 석굴사원의 차이티아는 산치의 제17, 18, 40 법당(Fig.28)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고, 남인도의 나가르주나콘다에서도 소 스투파와 불상을 각각 모신 대칭형 쌍 차이티아 구조⁵⁰⁾를 확인할 수 있다.

Fig.28 Shrine No.17 of Sanchi complex

산치의 경우에는 최초 조성 이후 지속적으로 증축된 유구인데, 이중 사당형 불전은 7C에 부가된 것이고, 스투파가 부가되지 않는다.

4. 결 론

쿠산시대 스투파는 인도 초기 전형양식에서 점차 발전되어가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특히 이 시기의 형식은 B.C. 3세기 이후 유지되어온 불교와 불교 건축에서 혁신적인 발전양상을 보이는데, 인도 전역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즉 쿠산시대 불교미술과 건축은 간다라를 중심으로 외래 헬레니즘문화의 영향과 자생적 인도문화가 성숙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러면서 신앙의 중심적 대상과 체계에서 점차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된다. 본고에서 쿠산시대를 중점으로 언급하고자 한 것은 시대적, 내외재적 요소에 의해 불교의 다양성이 확대되면서 미술과 건축에서 변화와 특징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현상적인 변화에 대해 쿠산시대 양식이 반영된 스투파를 중심으로 제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쿠산시대 스투파의 특징으로는 크게 10가지로 대표할 수 있다.

첫째는 초기 스투파의 전형양식인 원형기단이 지속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비록 그 사례가 많지 않으나 기본적인 양식과 형태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스투파에서 기단이 추가되거나 중첩되면서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다. 셋째는 기단이 중첩됨과 동시에 방형기단을 보이는 스투파가 본격적으로 조성된 것(이는

49) 손신영, 위의 논문, p.135~136.

50) 남인도의 나가르주나콘다는 3C 이후 조성된 사원으로 주 스투파가 조성되고, 5C 이후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시아 불탑의 전형적인 기단으로 발전)이다. 여기서 중첩되고 높아진 기단과 방형기단은 쿠산양식에서 가장 특징적이면서 모든 양식적 발전과 연계된다. 넷째는 원형기단을 가지는 초기형을 제외하고, 스투파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장식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복발의 중요도가 감소하면서 축소되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원형기단을 제외한 세 가지 특징들은 서로 연관성을 보이는데, 이 특징들은 높은 위계를 가지는 스투파의 강조와 숭배가 목적이 된다. 또한 이는 관람이나 시각적 극대화를 고려하면서 변모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는 스투파가 고준화되면서 난간이 약화되고 탑문의 위치가 변화되는 것이다. 난간의 표현은 장식적이거나 상징적인 문양으로 대체되기도 하며, 탑문이 커진 사원의 외곽으로 위치가 변경되기도 한다. 여섯째는 신앙 대상의 변화에 의해 스투파에 불상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양상이다. 즉 간다라·마투라 미술의 발전은 서양의 사상과 이념이 반영되면서 인간중심적이고 현세적인 실용양식으로 변모된다. 이 결과 불교건축에서는 불전이나 스투파에 불상이 부가되기 시작한다. 일곱째는 불상의 출현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중심이 되는 스투파 주변이나 기단부에 감실이 조영되면서 불상과 소형스투파가 부가되는 형식이다. 이는 봉헌물의 성격이 강한데, 다수의 불상과 스투파, 조상들이 조영되었다. 여덟째는 기단 내부의 구조적인 변화형식이다. 이는 지질학적 특징이 반영되면서 지진을 대비하고, 스투파의 자체적인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단 내부를 바퀴살 모양으로 보강한 것이다. 아홉째는 일반적인 스투파와 달리 방형기단의 발전형인 십자형 평면이 나타난다. 이는 고탑형과 만다라형 스투파와 연관성을 가진다. 열째는 승원 내부 마당이나 Apse(후진)형 차이티아와 같은 실내 공간에 조영된 스투파이다. 이는 석굴사원 차이티아 형식이 사원의 전체 영역으로 확대된 것을 의미하며, 점차 개인적인 신앙의 대상이 필요에 의해 발전된 형식이다.

이상의 특징들은 쿠산시대 조형 활동에서 큰 역할을 하였으며, 인도 전역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다양한 건축이 이뤄지게 된다. 또한 이는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나아가 중국과 한국에까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문화, 미술, 건축 등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친 쿠산의 스투파에 대해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쿠산을 전후로 하는 제 발전양상과 함께 주변국으로 발전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Akira Miyaji(宮治昭), Kim, hyang-suk translation, 『Indian Art History』, Dahal, 2006
2. Benjamin Rowland, Lee Ju Hyung translation, 『Indian Art History』, Yegyeong, 2004
3. Christopher Tadgell, 『The History of Architecture in India』, Phaidon, 1994
4. Dae Yeon, 『Buddhist Pilgrimage』, EASTWARD, 2000
5. D. Barrett, 『Sculptures from Amarāvati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1954
6. Jamees Fergusson, 『History of Indian and Eastern Architecture』, John Murray, London, 1891
7. Lee, Hee Bong, 『Fundamental Examination and Renaming of the Terminology of the Buddhist Pagoda』,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19 No.4, 2010
8. Mun, Myeong Dae and others, 『Met the Buddha from Gandhara』, Haneon, 2009
9. Murada(村田治郎), 『An outline of architecture 4(建築學大系 4)』, ChangGukSa(彰國社), 1972
10. Percy Brown, 『Indian Architecture』, D. B Taraporevala Sons & Co. Private LTD. 1956
11. Rhi, Ju Hyung, 『Gandhara Art』, Four Seasons, 2003
12. Rhi, Ju Hyung, 『Afghanistan, Lost Civilization』, Sapyoung, 2007
13. Shon, Shin Young, 『A study on Gandhara Stupa』, THE MISULSA, No.25, 2005
14. Susan L. Huntington, 『The art of Ancient India, Buddhist, Hindu, Jain』, Weatherhill, New York, 1985
15. Vidya Dehejia, 『Indian art』, Hangilsa, 2001
16. Xuanzang(玄奘) 『Ta-t'ang-hsi-yu-chi(大唐西域記)』
17. Yun, Jang Seop, 『Indian architects』, Seoul University Press, 2002

접수(2012. 10. 15)

수정(1차: 2012. 12. 25)

게재확정(2012. 12. 28)